

# 학교예산을 개인돈으로 '핑핑'

### 56만원어치 등산복·30만원어치 골프가방 구입에 쓴 고교 체육교사들 '덜덜'

학교 공금으로 수십만 원짜리 옷을 사 입은 체육 교사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체육복 구입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고가의 등산복이나 골프복 등을 산 고교 체육 교사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 고교는 3명의 체육 교사들이 2014년부터 3년간 책정된 체육 활동용 피복비 509만 원 가운데 376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이들 교사는 1인당 연간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책정된 피복비를 학교 체육 활동과 무관한 등산점퍼나 골프복, 골프화, 일상용 점퍼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

56만 원짜리 최고급 등산점퍼, 30만 원대 골프가방세트 등을 산 교사도 있었다. 공금을 빼돌려 제멋대로 쓴 것이다.

이들 교사는 지출품의서에 피복의 품명과 수량, 단가 등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단순히 운동복이나 운동화 등으로 속여 써넣는 방법을 썼다.

학교 측도 체육 교사들에게 학교 법인카드를 쥐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규정에는 학교의 계약 담당자가 물품을 구매해 교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B 고교의 체육 교사 4명도 해마다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 책정된 피복비를 40만~50만 원짜리 등산복이나 고급 티셔츠 등을 사는데 써오다 적발

됐다.

C 고교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피복비를 전용하는 등 각 학교에서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쓴 피복비를 전액 회수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등의 처분을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례로 해왔던 일로 보인다"며 "하지만 명백히 불법인 만큼 응납할 수 없으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전북대, 고교생 대상 공학체험캠프 '호응'

전북대가 방학을 맞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학체험 캠프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북대 공대에서 지난 5월 '아두이노기반 IoT 교육'을 이수한 고교생 60명을 대상으로 체험캠프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기 중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프로그래밍과 융합기술 분야 지식을 기반으로 팀별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북대 공대 학생 10여 명이 멘토로 참여해 고교생들에게 진로지도와 멘토링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고, 우수학과 소개와 우수 연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고민형 기자



"계곡물이 시원해요" 연휴 이틀째였던 지난 14일 완주군 동상면 한 계곡에서 피서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원광대 김옥진 교수 국가연구시설 심의위원 위촉

원광대는 생명환경과학부 김옥진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임명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회가단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정부 R&D 예산으로 구축하는 1억 이상 연구시설 및 장비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 부처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과 미래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합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담당할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회평가단'을 올해 새롭게 조직했으며,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공모로 심의위원을 선정했다.

/고민형 기자

## 전주 원색장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 밑그림 완성

### 시, 마을 이름에 단어 '명화' 덧붙여 '그림같은 마을'로 명소화

전주원색마을과 주변 농촌마을을 잇는 전주 원색장마을을 농촌관광거점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구 시의원, 주민, 용역기관인 전북대 산학협력단,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원색장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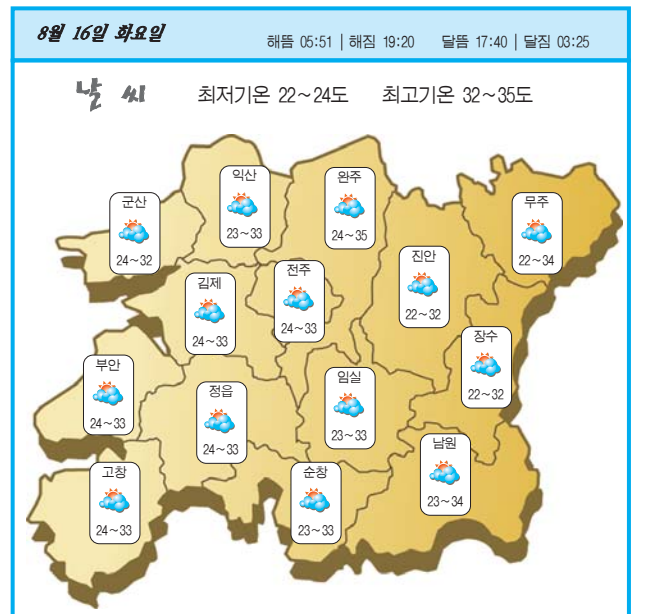
전주 원색장 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30여원을 투입해 마을의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역량과 관광객 수용 역량을 강화해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목표를 원색장 마을에 '명화'라는 단어를 덧붙여 '원색명화마을'로 정하고, 마을 전체를 '그림

(畵) 같은 마을, 꽃(花)이 피는 마을'로 명소화하기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세부 사업계획으로는 지난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마련한 마을공동부지에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농촌관광체험시설을 신축기로 했다. 또, 공동부지 옆 다라농지에는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등 경관농업까지 조성해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



##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 추진

### 시, 내년까지 단계별로 종합계획 수립키로

전주시가 모든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안정 주거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단계별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전주시 복지정책을 주거복지정책까지 확대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는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08.2%(가구수=24만8068, 주택수=268,442)에 달해 양적인 측면에서의 주택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1만10699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전국 평균 약 5.6%)에 불과하고, 점유형태도 전·월세 등 임차주택이 전체의 39.6%를 차지해 주거취약계층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산업과 경제공간 중심의 주택정책을 사람중심의 주거권 정책으로 전환시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전주형 주거복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이달 중 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주거복지네트워크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및 자원연계, 주거복지 정책 개선 및 제안 활동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2011.8.16.시행)를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 법이자 기본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2015.12.23.시행)의 위임사항을 적극 반영해 전부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관이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원칙을 설정하고, 2017년 상반기 중 전주시 주거복지종합적인 계획 등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핵심사업으로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들과 연계해 빈집과 국·공유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주형 임대주택(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주형 주거복지사업 등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주거복지와 주거권보호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복지·사회통합 의제와 더불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주형 주거복지 핵심사업을 민·관 협력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